

### CJ제일제당, 하반기 해외시장 공략 박차

식품 부진에 2분기 실적 기대 '발목'

CJ제일제당이 올해 2분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외 식품 부문 부진이 실적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데 하반기에는 소비쿠폰 효과와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13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조 23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포함세(+0.0%)를 나타냈으며, 증권가 컨센서스보다 1.7% 낮았다. 영업이익은 3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줄었고, 컨센서스 대비 3.1% 밀렸다. 반면 지배주주순이익은 1625억원으로 65.6% 급증하며 기대치를 46.9% 상회했다.

국내 식품 부문은 온라인 채널 매출이 24% 증가했으나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가공식품 매출이 3%, 소제 부문은 대두박 시황 약세로 7% 감소했다.

해외 식품 부문은 미주 지역의 디지털 매출이 27% 감소했지만 피자(+12%), 롤(+18%), 냉동밥(+19%) 판매 증가로 방어하며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유럽은 메인 스트림 채널 신규 입점과 제품 카테고리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25% 늘었다.

바이오 부문은 트립토판·핵신의 전년

고기저 부담에도 라인신 판가 상승과 농축대두단백(SPC) 판매 증가로 매출이 2% 늘었으며, 대형 아미노산 업황 개선과 셀렉타 판가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8% 증가했다.

사료·축산·신선육 사업을 담당하는 F&C 부문은 사료 판매량 증가에도 판가 하락으로 매출이 3% 줄었지만 사료 가공을 개선과 베트남 축산 안정화로 영업이익이 25% 늘었다.

한편 대한통운을 제외한 2분기 매출액은 4조 3224억원(-0.2% YoY), 영업이익은 2351억원(-12.6% YoY)으로 시장 기대치(2492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미주 가공식품 매출은 생산 차질로 정체됐고, 국내외 가공식품 영업이익률은 4.0%로 전년 대비 2.0%p 하락했다.

CJ제일제당은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3분기 대한통운 제외 매출액은 4조 7875억원(+3.6% YoY), 영업이익은 2942억원(+6.4% YoY)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식품은 전년 기저효과와 소비심리 회복으로 2% 증가, 미주 식품은 파이썬과 정상화로 4% 증가 전망된다. 다만 바이오 부문은 경쟁 심화로 유의미한 이익 개선이 4분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 홈플러스, 15개점 폐점·본사 무급휴직

13일 '긴급 생존경영 체제' 발표

"소비쿠폰 사용처 배제돼 유동성 압박" 입원 급여 일부 반납, 회생시까지 연장 노조는 "브랜드 포기하는 것" 반발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임대료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를 순차 폐점한다.

홈플러스는 13일, 전사적인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지점에서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점차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향후 인가 전 M&A가 성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회생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체 68개 임대 매장 중 임대료 조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15곳의 매장을 닫기로 했다.

폐점 대상 점포는 시흥점, 고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전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다. 내달 1일 부로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제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입원 급여 일부 반납 조



홈플러스는 13일 전사적인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를 회생 성공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자금 압박 완화를 위한 자구책 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일부 대형 납품업체들이 정산주기를 단축하거나 거래한도를 축소하고, 선지급과 신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다"라며 "또한, 지난 7월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사용처에서 전례에 따라 대형마트가 포함되지 않아, 최근 홈플러스의 매출 감소폭은 더욱 확대. 자금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조주연 공동대표는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가 전 M&A를 통한 회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최후의 생존경영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달 30일에는 홈플러스의 조기 정상화와 인가 전 인수합병(M&A) 성사를 바라는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약 2만2000명이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송수연 기자 sssy1216@viva100.com



## 비전 신도시 '경산 대임'의 미래가치를 선점하라!

큰 기대와 설렘으로 탄생하는 경산의 새로운 중심!

**계약조건 선택형** **공동주택용지(B3) 수의계약**

**거치형 토지리전제** **근린생활시설용지 수의계약**

분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콜센터 1600-1004**

분양문의 **053)603-2582**



## 롯데, 네이버페이와 적립 행사

연말까지 네이버페이 포인트와 머니 결제금액 10% 즉시 적립, 1회 1만원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간편결제 확산 트렌드에 맞춰 대규모 포인트 적립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롯데슈퍼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 10% 적립'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 또는 머니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1일 1회, 결제금액의 10%를 즉시 적립해준다. 1회 최대 적립 한도는 1만 원이며, 이는 네이버페이 제휴 오프라인 유통채널 중 최고 수준의 적립률이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2024년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결제 금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카드 기반 간편지급 서비스 비중은 51.1%로 절반을 넘어섰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7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객을 위해 위챗페이·알리페이·대만 라인페이 등 3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2월 위챗페이, 올해 2월 대만 라인페이를 새롭게 도입해 중국·대만 방문객의 결제 편의를 높였다.

특히 롯데마트는 대형마트 3사 중 유일하게 네이버페이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1월 업무 협약 이후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기기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왔다.

김재성 롯데마트·슈퍼 커머스마케팅팀 담당자는 "간편결제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간편결제 업체와 협력해 내외국인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서울우유 디저트 누적 판매량 300만 개 돌파 GS25가 서울우유와 '스핀오프(spinn-off)' 콘셉트로 선보인 '서울우유 디저트' 시리즈가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 제품인 '서울우유 우유크림모찌롤'은 100만 개 이상 판매되며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모델이 서울우유 모찌롤 2종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리테일 제공

## 화장지 사업 매각 전면 부인 유한킴벌리 "사실 아니다"

유한킴벌리가 화장지 매각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3일 유한킴벌리는 입장문을 내고 "화장지 사업 매각설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매각설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화장지 사업은 당사의 핵심 비즈니스로 크리넥스 등은 유한킴벌리의 상징과도 같다"며 "따라서 결코 여타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창립 이래 50년 넘게 대한민국 화장지 산업을 이끌어 왔으며, 외국산 제품의 공세에 맞서 국내 시장을 굳건히 지켜왔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와중에도 화장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업에 혼신의 힘을 다함으로써, 국내 공급망의 안정에 크게 일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앞으로도 독자적인 연구개발과 제조 역량을 발휘해 대한민국 1등 제품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FSC-CoC 인증, 핸드타월 재활용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ssy1216@viva100.com